

06 2026
June
Sokcholic

속초홀릭

속초소식지 | Magazine of Sokcho City

속초시보훈회관

승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오늘의 속초, 잊지 않겠습니다.



비둘기

글 이영수

검은 아스팔트 위 힐끔힐끔
 절뚝거리며 걷는 저이 누구인가

망향가 갯배와 함께 바다로 떠날 때
 그는 평화가 되어 하늘을 날았다
 북녘 하늘 넘어온 날개
 제 피붙이 마냥 챙기며
 이산의 슬픔을 삭히던 아버지

젓갈처럼 절인 세월 망자 되어 고향 찾고
 비둘기는 평화를 잃은 채
 도시의 노숙자 되었다

아버지는 고향을 잃고
 비둘기는 평화를 잃은 채
 모두가 제 자리로 찾아간 텅 빈
 거리를
 혼자 떠도는 발길

더 이상 날아갈 곳 없는
 무용의 날개
 평화는 옛적.

이영수 2022년 계간 「시인정신」 신인문학상
 속초문인협회 회원
 설악문우회(갈매) 동인, 강원문인협회 회원

Contents

2026년 6월

속초홀릭을 웹매거진으로!

지금 바로 QR코드에
폰 카메라를 대보세요.



생생속초



공감속초



소통속초

02 갤러리속초

04 기획특집
속초시보훈회관

08 메이킹인속초
속초세관 마약탐지견

11 라이프인속초
속초사잇길 4길
갯배, 아바이마을로 가는 길

16 같이의가치
재난현장 활동 봉사자

18 잘생긴속초

19 속초일러스트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기억할게요

20 알.쓸.복지

21 도서관소식

22 문화마당

23 한장의박물관
우리 생활 문화유산, 떡살

24 우리동네소식

25 우리동네일자리

26 다른그림찾기

27 독자기고

28 속초뉴스

30 알림마당



커버스토리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이어가는 속초시보훈회관.

송고한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일상 속에서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보훈가족의
든든한 곁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희생과 헌신,
계속 이어가야 할 보훈의 가치.
호국영웅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6월이 되길 바랍니다.

〈속초홀릭〉은 상단QR코드를 통해 웹진(<https://sokcho.go.kr/bo/holic>)으로
보실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홀릭〉구독신청

속초홀릭은 다양하고 유익한 속초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속초시가 무료로 배포하는 월간지입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은 무료로 우편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속초시청 홈페이지 → 속초소식 → 속초소식지 → 구독신청

〈속초홀릭〉참여안내

속초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속초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상단 QR코드를 통해 사연을 보내주세요. (QR코드스캔 → 사연참여 클릭)

속초홀릭(SOKCHOLIC)에 게재된 외부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속초시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삽입된 그림, 삽화,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중심, 속초시보훈회관

글 이나영 / 사진 이종건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되새기는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과 자유, 그리고 안전한 삶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묵묵히 앞장서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실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훈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공간인 속초시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속초시보훈회관



속초시보훈회관



위치: 속초시 미시령로 3210(노학동)
 운영시간: 월-금 09:00~17:00
 (이동보훈상담실: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10:30~12:00)
 사용단체: 9단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속초시지회,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 속초시지회, 광복회강원도지부 영동북부연합지회

기존 보훈회관은 1995년에 지어져 30여 년간 사용되면서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보훈단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보훈회관 이전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훈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미시령로 3210(노학동)에 신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8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속초시보훈회관은 3층 규모의 건물로 보훈사무실,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보훈가족의 교류와 복지 증진은 물론 시민이 함께 보훈정신을 공유하는 소통과 연대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소회의실 · 다목적실

회의 및 행사 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지난 5월에는 다목적실에서 '금호 나라사랑 히어로즈' 첫 개시 사업인 「히어로즈 사진관」 기념사진 전달이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금호동 소재 전문 영상업체의 재능기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자원봉사자의 헤어 및 메이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호국 영웅들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기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다양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근력 강화 활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보훈단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속초시지회**

6.25전쟁 참전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로 참전유공자 회원의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25전쟁 바로알리기교육을 실시하여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속초시지회**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입은 공적이 있는 군경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훈 정신 고취, 회원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훈 탐 참배 및 주요 보훈 행사 참석으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월 1회 관외 병원 방문을 지원하는 등 회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속초시지회**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전물군경의 유가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국가보훈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 가입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물군경 유가족으로 가입 후에는 각종 보훈행사 참여 및 회원 복지를 위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속초시지회**

1998년 국가보훈부의 정식허가로 설립되었습니다. 월 1회 차량 운행으로 병원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전적지 순례를 진행하며 호국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113명의 고엽제 환자가 가입되어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속초시지회**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이 함께하는 보훈단체로 지회장, 감사, 운영위원 그리고 8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속초시지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무공·보국훈장 수훈자가 모여 상부상조와 애국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수호 유공자 단체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회원 복지 증진, 자활 능력 배양,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하며 선양 행사 지원 및 전적지 순례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속초시지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 군경의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국가보훈단체로 18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합동위로연 개최 및 전적지 순례 등을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월 1회 월례회의 개최로 회원간 상호 교류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속초시지회**

육군첩보부대(HID), 해군첩보부대(UDU), 해병첩보부대(MIU), 공군첩보부대(AISU)와 민간공직원 등 대한민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들로 구성된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회원 권익 증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봉사 및 홍보 활동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복회강원도지부
영동북부연합지회**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뜻을 계승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 의식 확산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훈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을 마음으로 기리고 그 뜻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속초세관 마약탐지견 '칼리와 제시'

글 이나영 / 사진 이종건

매년 6월 29일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국제연합(UN)이 국제사회에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9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그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퇴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메이킹인속초에서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및 마약범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속초세관에 방문하여 마약탐지견 '칼리와 제시'를 만나보았습니다.

속초시민에게 속초세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속초세관은 2000년 북방항로 개설, 2001년 금강산 해상관광 설봉호의 속초항 취항,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영동지역 관세국경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 1월 동해세관 속초출장소에서 속초세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속초세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통관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소속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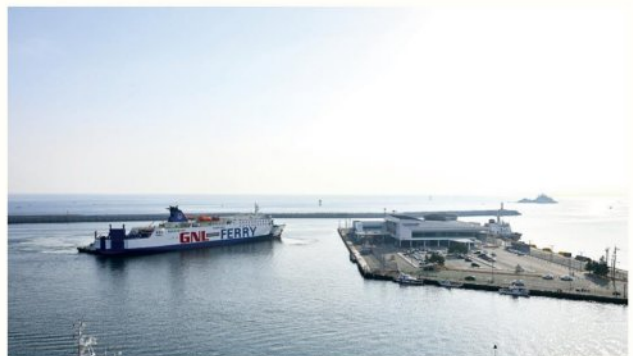
속초세관은 2과(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1센터(고성지원센터) 체제로 운영되며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관지원과는 속초항의 수출입 물류 지원과 통관을 담당하며 조사심사과는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출입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세징수, 밀수출입·마약·외환사범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원센터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대북육로 통관 지원을 위해 2016년 1월 속초세관 관할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9대 이원상 속초세관장

속초항이 북방항로와 국제제류의 관문이 되는 만큼 단속과 안전 관리의 균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있나요?



속초항에는 기존 러시아 활어선 외에도 2024년 7월부터 일본과 중양아시아 간 중계무역을 위한 일본산 중고차 운반선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한 국제크루즈선 입항은 지난해 4항차에서 올해 총 17항차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세관은 관내 기업지원과 균형 있는 관세행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출입기업지원팀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속초항 물량 증가에 대비한 지정장치장 시설 개선 등 물류인프라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마약탐지견 활동 강화, 어촌계 해상밀수 예방활동, 명예세관원 운용 등 민관협력을 통한 마약단속과 위험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초세관에 **마약탐지견**이 배치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단속 인력과 검사 장비를 투입하여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존과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과 다양한 루트를 통한 밀반입 시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지역 국제공항만에서도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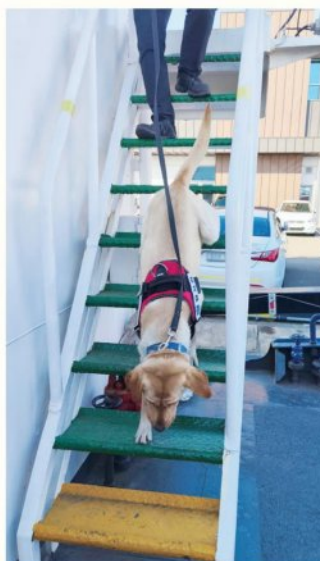
이에 관세청에서 다양한 마약류 밀수 수법에 따른 선제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속초세관에 마약탐지견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p>마약탐지견 칼리</p> 	<p>마약탐지견 제시</p> 
<p>견종: 래브라도 리트리버 색상: 검은색 나이: 4세 성별: 여 성격: 차분하고 의젓함, 식탐이 없는 무소유 탐지견 경력: 인천공항세관 입국장에서 밀반입되는 마약 탐지 적발에 기여</p>	<p>견종: 래브라도 리트리버 색상: 노란색 나이: 2세(속초세관 막내) 성별: 여 성격: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애교쟁이</p>

칼리와 제시가 속초세관에 배치된 이후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속초세관은 육해공 관문을 모두 담당하는 만큼, 칼리와 제시에게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마약탐지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선박은 좁은 공간과 많은 장애물 때문에 전문 탐지견이 많지 않고 세관 자체의 추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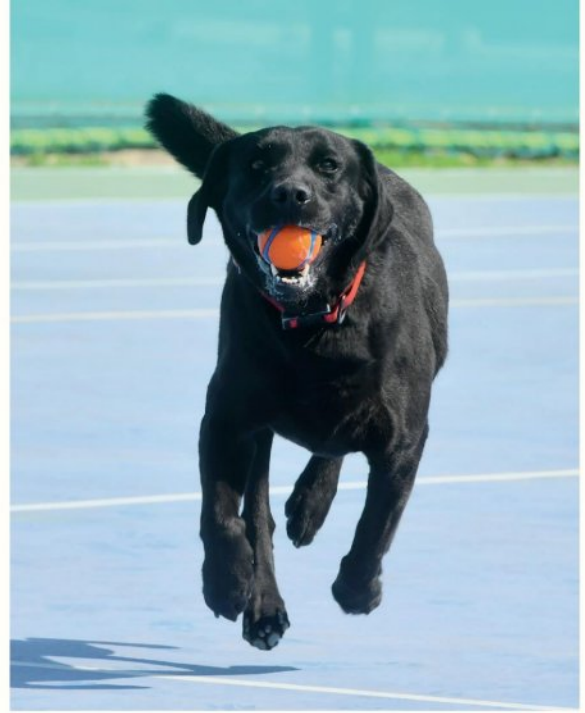
칼리와 제시도 처음 선박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좁은 계단 같은 장애물 앞에서는 겁을 먹고 주저앉곤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안고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꾸준한 적응훈련 끝에 스스로 공포를 이겨내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칼리와 제시의 하루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칼리와 제시는 오전 중에 식사를 하고 세관 내 견사와 체육시설에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마약탐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고도의 후각적 집중력을 발휘하여 어떤 악조건하에서도 마약 탐지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스케줄에 맞춰 건강관리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관기관과의 합동 마약탐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탐지활동을 나가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 훈련 및 선상 적응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도 주기적으로 받으며 마약 근절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점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속초세관에 배치된 마약탐지견은 국제공항만에서 세관 직원을 도와 마약을 탐지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해양경찰서와 일부 군부대, 교도소 등 강원권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제무역선박과 수출입 물품, 외부 반입 우편물 및 일부 제한 시설에 대한 합동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약 적발 사례는 없지만 마약탐지견 투입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도 늘고 있어 활동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마약탐지견 훈련과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해양경찰서는 다양한 선박에서 선상 마약탐지훈련 기회를 제공해 탐지견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속초세관은 앞으로도 권역 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속초세관에서 속초시민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속초세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3路[동북아 북방항로인 '바다길' 속초항, '하늘길'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남북왕래자의 '육지길'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고성지원센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초세관은 본연의 업무인 ① 수출입통관지원, FTA 이행관리 등 국제무역 촉진 ② 마약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 및 국민 건강보호 ③ 관세, 내국세 징수 등 국가재정수입 확보 ④ 남북왕래자, 국경출입차량 관리 등 남북교류 협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약범죄 확산방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터넷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다크웹·텔레그램 등 익명 경로를 통한 구매 역시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며 구매 자체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항구나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운반 정보 입수 제보 안내

속초세관 조사팀(033-820-2192) 또는 국번 없이 125(관세청 마약밀수신고)로 제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초세관 바로가기



그리움의 세월을 따라, 실향의 길을 걷다

속초사잇길 4길 아바이마을길

4길 아바이마을길 코스

총 길이: 4.8km
소요시간: 약 1시간
난이도: 하

시작점과 종점: 신포해변 통일기원비 앞

코스: 신포해변 통일기원비 - 설악대교 - 유정충선장 동상 - 청호 해변 - 제1군단전적비 - 아바이 벽화마을 - 청호동 마을길 - 갯배 선착장

스탬프 찍는 곳: 신포해변 통일기원비, 유정충선장 동상, 제1군단 전적비

S 스탬프 확인 지점



속초사잇길의 네 번째 길

푸른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속초의 동쪽 끝자락. 바다와 청초호 사이에 실향의 아픔과 그리움을 품고 오랜 세월을 이어온 아바이마을이 있습니다. 전쟁과 피난의 상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커져이 쌓인 골목 곳곳에 실향민의 사연이 스며 있습니다.

속초사잇길 4길에서는 아바이마을의 역사와 생활 그리고 함경도 음식문화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길은 아바이마을 북쪽 해변 이산가족통일기원비 앞에서 시작됩니다. 함경남도 신포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온 이 일대는 자연스럽게 '신포마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함경남도 북청과 흥원, 동해를 품고 있던 북녘의 도시 이름이 머나먼 속초 바닷가 마을에 남겨진 것입니다.



신포해변 한편에는 속초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선이 눈에 띄입니다. 오래된 실향민 마을과 크루즈선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등을 맞댄 듯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바이마을은 원래 더 넓은 마을이었습니다. 1998년 청초호를 정화하기 위한 신수로 공사가 시작되며 마을 한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약 2백여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신수로 건너편에는 미리내마을이 생겼고 오래된 난민촌의 모습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신수가 생기며 둘로 갈라졌던 아바이마을은 설악대교로 이어집니다. 다리 위에 오르면 청초호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푸른 바다와 호수, 그리고 오래된 마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설악대교 아래로 내려가면 아트플랫폼 갯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속초 사진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흑백사진 속에는 오징어 덕장과 판잣집 지붕이 빼곡히 들어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청호동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로 피난민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속초해수욕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동상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故 유정충 선장의 동상입니다.



1990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조업 중이던 602 하나호가 갑작스레 거센 돌풍에 휘말렸습니다. 유정충 선장은 선원들을 구출하려는 일념으로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구조신호를 보냈으며 그의 희생 덕분에 선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살신성인 정신을 몸소 실천한 유정충 선장의 일이 지금도 청호동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조도전망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도를 바라보며 속초바다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제1군단전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351고지 전투, 향로봉 전투, 설악산 전투 등에서 속초와 고성, 양양을 지켜낸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에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낮은 집 벽 사이로 걸린 빨랫줄, 오래된 창틀, 세월에 닳은 담벼락은 여전히 피난민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군들이 버리고 간 전투식량 박스와 비닐로 움막을 만들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척박한 삶 속에서 고향의 음식을 만들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골목 사이사이에 실향의 아픔이 절절히 담긴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는 얼굴들, 속초사자놀이, 돈돌라리, 보따리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실향민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악대교를 건너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인 신포마을로 돌아오면 함흥냉면,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함경도식 젓갈 등을 맛볼 수 있는 이북 음식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바이마을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실향민의 삶과 기억이 담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입니다.



함흥냉면의 짙긴 면발에는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고 아바이순대와 오징어순대에는 굶주린 피난 시절을 견디게 했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명태식해와 젓갈에는 북녘 바다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아바이마을의 음식을 먹으며 낯선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기억과 그리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옮겨 시작점인 통일기원비에 다다르면 속초사자놀이보존회 전수공간이 보입니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 지방의 민속놀이로 전쟁 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고향의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다시 사자탈을 쓰고 북을 울리면서 전승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명맥이 끊길 위기도 있었지만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났고 오늘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가슴에 품고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을. 눈물 속에서도 음식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사자춤을 이어오며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속초사잇길 4길 아바이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실향민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긴 깊은 여운을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속초사잇길 바로가기

갯배, 아바이마을로 가는 길 청초호 위에 남겨진 피란민들의 시간



쇠줄을 잡아당기면 철썩이는 물소리와 함께 작은 나무배가 천천히 맞은편으로 움직인다. 속초 여행을 온 사람들은 한 번쯤 갯배를 탄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청초호 물살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물밑을 내려다본다. 거리는 겨우 100여 미터, 몇 분이면 건널 수 있는 짧은 물길이다.

하지만 청초동 사람들에게 갯배는 하루를 잇는 목숨줄 같은 길이었다. 잡은 생선을 팔러 시장으로 가고, 가족이 먹을 것을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른 아침이면 머리에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중앙동으로 향했고, 생선을 팔러 광주리를 든 사람들도 하나둘 갯배에 올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려고 갯배를 탔다.

갯배에서 내리면 좁은 골목 사이로 이어진 청초동 아바이마을이 나타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함경도와 북강원도에 서 내려온 사람들은 청초동 모래밭에 머물렀다. 곧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착한 마을이다. '아바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나이 많은 남성이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그들은 청초동 모래밭에 바람과 비를 피할 작은 하꼬방을 짓고 살았다.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들은 낮았고, 골목은 두 사람이 겨우 비켜설 만큼 좁았다. 처마 끝에는 명태가 걸려 있었고, 찬바람을 막으려 문틈마다 헝겊이 끼워져 있었다. 새벽이면 장화를 신은 아바이들의 함경도 사투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골목을 채웠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간 하루들은 계절을 넘고 해를 넘어 어느새 피난민들의 생애가 되었다.



아바이마을 골목에는 오징어순대를 파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바다를 등지고 사진을 찍는다. 식당 간판들을 보면 단천식당, 신포순대, 함흥냉면 같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눈에 들어온다. 돌아갈 수 없게 된 뒤에도 사람들은 단천과 신포, 함흥 같은 고향 이름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아바이마을 사람들은 단지 그리움만 품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 아바이들은 바다로 나가 명태를 잡았고,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다. 투박한 사투리로 서로를 챙기며 좁은 골목 안에서 함께 살아냈다. 명절이면 고향에서 먹던 음식 냄새가 퍼졌고, 골목에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고향의 기억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낫선 땅, 속초에서 부리를 내렸다. 지금, 이 골목과 음식에는 그들이 살아낸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다.

맑은 날이면 청호동에 남겨진 사람들은 북쪽 하늘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몇 시간이면 달을 거리었지만 휴전 후 고향은 가장 먼 곳이 되어버렸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청호동에서 눈을 감아야 했다. 한때 이 골목은 새벽마다 명태배가 나가고, 돌아온 아바이들의 투박한 목소리로 채워지던 곳이었다. 이제 골목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아바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갯배는 지금도 청초호 물길 위를 천천히 오간다. 쇠줄을 당길 때 손끝에 느끼는 물살의 힘은 여행자의 추억일 뿐이지만, 그 배 어딘가에는 아바이들의 숨결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갯배를 타고 건너 아바이마을 골목을 걷는다면, 잠시 그들의 시간을 떠올려보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건너는 이 짧은 물길은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고향과, 그리움을 견디며 살아낸 세월 사이에 놓인 길이었다.



참고문헌

갯배, 아바이마을로 가는 길 (저자 김종성)

길을 잃고 발이 묶인 속초에서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시간을 담은 책. 갯배를 타본 적 있거나 아바이마을 골목을 걸어본 적 있는 분들에게 아바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끝내 살아낸 숨결처럼 이 책이 조용히 당기를 바랍니다.



봉사현장에서 찾은 인생의 전환점 자원봉사자 함영화 님

글 박창우 명예시민기자 / 사진 홍순복 명예시민기자

불러만 주면 갑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 현장은 물론, 허리 휘는 연탄 나르기, 행사 뒷정리, 김장 봉사, 경로당 배식봉사까지... 함영화 님의 시계는 봉사 현장에 맞춰 돌아갑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새내기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봉사 이전과 이후, 제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이내믹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했건만

2006년 인제 집중호우 때였습니다. 처참한 수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던 봉사자들을 보며 “나도 꼭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먹고사는 게 뭔지, 그 결심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20년이 흘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부채감’으로 남아있던 그 약속은 바쁜 일상에 치여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약속이 먼지를 털고 빛을 보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함영화 님

진흙 뱀에서 찾은 인생의 ‘유레카’

2025년 여름,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소식에 20년 전 다짐이 벼락처럼 떠올랐습니다. 방송국부터 여러 지자체까지 사방팔방 문의한 끝에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소개받아 찾아갔죠.

다음날로 투입된 가평 수해 현장. 방 안에 20cm 넘게 쌓인 진흙을 퍼내고 가져다주는 도구를 씻어내며, 망연자실했던 이재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도는 걸 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손마디가 저러왔지만, 그때 느낀 가슴 벅찬 전율은 인생 처음 맛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눈치 안 보며 일하는 즐거움

평생 내 사업만 하며 모든 걸 ‘돈’과 ‘수익’으로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돈 안 주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무보수 봉사가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사업할 땐 수금하려고 상대의 기색을 살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땀 흘릴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이토록 즐거운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고마워하는 수혜자들의 미소 한 번이면 에너지가 가득 충전됩니다. 기분이 그야말로 ‘뽀뽀’입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

봉사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코가 석자인데 뭘 그걸 하느냐”는 사람부터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며 충고를 하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 결핍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본업이었던 전기공사 오더가 간간히 들어와도, 형편이 어려운 곳엔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무료 서비스를 씁니다. 통장 잔고는 비워질지 몰라도, 마음의 잔고는 ‘보람’이라는 이자로 꽉꽉 채워지는 중이니깐요.

봉사는 ‘근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하는 것

“난 힘이 없어서”, “난 바빠서”라는 핑계는 봉사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먼지를 닦고, 시간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잠시 일손을 보태면 됩니다. 저마다의 형편에 맞게 꼭 필요한 봉사거리가 주어집니다. 여럿이 ‘으쌔으쌔’ 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법! 전쟁터에서 전우를 구하는 심정으로 임하다 보면 먼 길도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가게 됩니다. 봉사는 힘센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 뜨거운 사람들의 축제가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사라진다고요?

봉사를 주저하는 분들은 “내 스케줄 꼬이면 어떡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스마트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정 덕분에 본업과 병행하며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시간을 쪼개쓰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을 가치 있는 일로 채우다 보니 인생의 밀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긴다는 손해의식보다는 내가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훨씬 더 큼니다. 자원봉사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봉사 선진국’으로!

개인주의가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 자원봉사마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할까요? 나 혼자 잘 사는 세상을 넘어, 내 옆의 이웃을 살피는 마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눔을 당연한 일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봉사 문화가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을 넘어 진정한 ‘자원봉사 선진국’이 되는 날까지! 함영화 님의 뜨거운 심장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희망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속초 골목골목마다 희망을 전하는 함영화 님, 그의 진심이 우리 이웃의 일상을 깨우는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길 응원합니다.



디오션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행정 전문성과 현장 실무를 결합한 프리미엄
부동산 중개·자문 서비스



공인중개사로서의 퍼스널 브랜딩, 고객과의 신뢰 구축,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는 초보 창업자를 위한 도서 「나는 프로공인중개사다」 출간

저희 디오션자이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관공서 근무 경력을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행정 경험과 부동산 이론, 현장 중개 실무를 결합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부동산 중개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권리관계,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해 고객님의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맞춤형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으로서,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주 소** 속초시 장안로31 근린생활시설동 B102호
- 연락처** 033-631-6603
- 시 간** 연중무휴 08:30~19:00
- 서비스** 부동산 중개 및 자문, 부동산 입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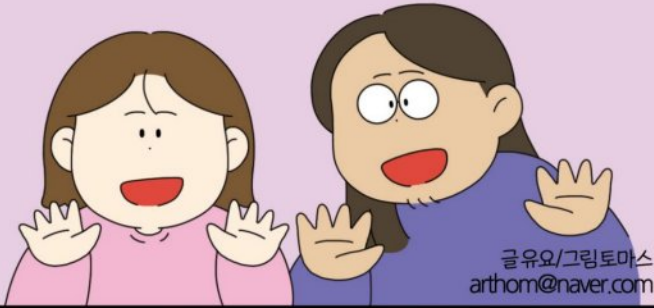


잘생긴 속초는 속초시 소재 소상공인, 강소기업 등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속초출력 지면을 통해 홍보를 지원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신청 조건 : 해당호가 발행되는 월말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이 1년 이내인 소상공인 및 강소기업
- ※ 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점 및 일반유흥주점,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 참여 문의: 속초시청 시민소통과 시정디자인팀 ☎ 033-639-2223

유유와 토마스의
SOKCHO LIFE

속초살이



글유요/그림토마스
arthom@naver.com



설악산지구전적비
6.25 전쟁 당시 설악산지구 전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전적 기념비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6.25 전쟁 당시 공산당과 싸우다 전사한 통천군 출신의 민간인과 군경 114명을 추모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세운 충혼비



제1군단 전적비
6.25 전쟁 당시 속초에서 싸우다 전사한 제1군단 용사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6.25전쟁과 월남참전의 역사적 의미와 참뜻을 널리 알려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속초시 출신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한 기념탑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기억할게요

알아두면 쓸데많은 복지정보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Danku(Thank you)한 속초만들기 참여자 모집

☎631-8761

- 대상** 반려견과 정기적인 산책이 가능한 지역 안전과 봉사에 관심이 있는 주민 30명
- 모집 일정** 상시모집
- 참여 혜택** 활동키트, 봉사시간 제공, 힐링 워크숍, 연말 우수 대원 표창 등 지원
- 내용**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살피는 참여형 활동
- 신청 방법** 우측 QR 신청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둘이 하나 되는 '굿파트너' 2회차 참여자 모집

☎635-3520

- 대상** 속초시 거주 가족구성원 2명(1쌍), 총 10가정(선착순, 참가비 무료)
- 진행 일정** 6월 17일(수), 18:30
- 진행 장소** 고고장구
- 내용** 공감 리듬 난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한화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작품 전시 및 시민투표

☎631-8761

- 일시**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진행 장소** 엑스포 하나로마트 2층
- 내용** 한화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작품 전시 및 시민투표

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재참여자 추가 모집

☎633-9564

-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40세~59세 미취업여성
- 진행 일정** 5월 26일(화)~6월 15일(월)
-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창업 성공금 지원
- 신청 방법** 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접수

영복노동교육법률상담소 무료상담 진행

☎635-7953

- 대상**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무료 상담 (변호사 및 노무사 초청)
- 진행 일정** 6월 5일(금) 09:00~15:00
- 진행 장소** 속초시 아남프라자

속초시가족센터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축제에 반하다, 가족을 더하다'

☎637-2680

- 대상** 관내 6세~초등학생 자녀를 둔 12 가정
- 모집 일정** 6월 20일(토), 09:00~14:00
- 진행 장소** 고성 하니라벤더팜
- 내용** 고성 하니라벤더팜 체험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속초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 모집 "함께하는 즐거운 봉사, 나눔으로 추억을 쌓아요!"

☎637-2680

- 대상** 일반가족, 1인가구, 다문화 가족 등
- 내용** 센터 프로그램 지원, 타기관 행사지원, 우리동네 환경정화활동 등
- 진행 일시** 2026년 5월 ~ 2026년 11월 / 수시모집
- 신청 방법** 전화 신청 (637-2680, 638-3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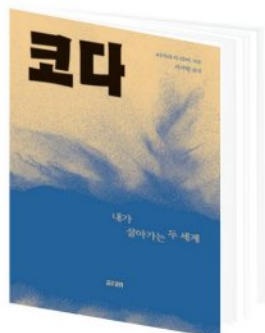
※ 더욱 자세한 지역 내 민간복지 정보는 QR코드 속초누리(속초시 복지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립도서관
추천 도서



속초시립도서관 바로가기



일반

코다: 내가 살아가는 두 세계

저자 이가라시 다이 | 출판사 타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는 세상을 어떤 감각으로 마주할까? 저자 이가라시 다이는 농인 부모 아래서 성장한 청인 자녀, 즉 '코다 (Children of Deaf Adults)' 로서의 삶을 30편의 글로 풀어낸다. 어린 시절 부모의 통역을 떠맡으며 느낀 부당감,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혼란, 수어라는 모국어 잃었다가 되찾는 과정을 담담하게 복기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문화를 잇는 '통역사'이자 '경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코다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고 죄책감과 부끄러움까지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장애 가족을 감동의 소재로 소비하기를 거부하고 일본 사회의 농문화(Deaf Culture: 청각 장애인들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문화)의 고유함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책은 장애를 고유한 '다름'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통찰을 담고 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찾고 싶은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이 될 것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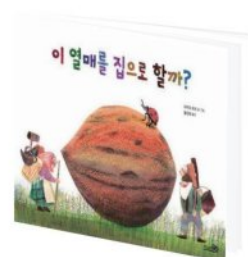
청소년

십대를 위한 영화 속 우주 인문학 여행

저자 오가희 | 출판사 팜파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니? 만약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이라면, 그건 정말 엄청난 공간 낭비(Waste of Space)일 거야." 영화 <콘택트>의 유명한 대사이기 전에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 우주 생명체가 있다고 소신을 밝힐 때 했던 말이다. 칼 세이건은 우주 어디가에 있을 지적 생명체에게 인류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보이저 계획'에 포함시켰다. 보이저호가 과학적 탐사를 마친 뒤에 수만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지구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영화는 그런 우주의 공간이 어떤 곳일지 상상하고 보여주는 콘텐츠이다. 영화의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 갈 수 있다. 우주에 대한 경외감과 극한 상황에서의 도전, 인류를 위한 희생, 지구 멸망 상황에서 느끼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십대를 위한 영화 속 우주 인문학 여행」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영화의 모티브가 된 역사적 사실, 과학적 배경, 우주과학 원리 등을 짚어 주며 영화를 과학적으로 보완해 준다. 이 책은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우주를 살피고 영화적 상상력에 과학을 절묘하게 덧대어 쉽고 재미있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이 열매를 집으로 할까?

저자 다카오 유코 | 출판사 천개의바람

『이 열매를 집으로 할까?』는 작고 소중한 집을 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연 속 다양한 열매를 집 삼아 살아가는 긍정적인 여정을 담은 그림책이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평화롭던 호두 집이 부서진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선다. 열매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삶의 터전이자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주인공들이 알콩달콩 보금자리를 꾸미는 장면마다 창의적인 탐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읽는 재미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변화 앞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유연한 태도까지 일깨워 준다. 아이와 함께 읽으며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나누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림책이다. 딸기잼과 수박 젤리, 사과파이 향기 가득한 집을 거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집은 과연 어디일까? 그 다양한 결말을 책 속에서 확인해 보자.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6월 영화 상영안내

속초시립도서관

문의: 033)639-3717

일시 둘째·넷째 토요일 14:00 ※ 보호자 동반입장 지향 (30분전부터 입장 가능)
장소 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 음식물 반입 금지

속초 선셋 시네마

문의: 033)639-2280

※ 상영작 매주 목요일 속초 공식 SNS 업로드, 속초 미디어센터 누리집 참고

일시 매주 토요일 일몰시간

*속초의 일몰은 설악산 능선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일몰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일찍 찾아옵니다.

장소 금호동 친수공원 내 공연장(속초시 중앙부두길 6)



6. 13.(토)



6. 27.(토)

2026년 6월
문화·체육 행사일정

6 **속초시립박물관 노리숲길 숲속마켓**
 일 시 6. 6.(토)~6. 7.(일) 10:00~17:00
 장 소 속초시립박물관 노리숲길
 내 용 문화체험행사,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역 농산물 마켓 등

7 **속초시립박물관 일요일작은 콘서트**
 일 시 6. 7.(일) 11:00
 장 소 속초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
 내 용 속초사자놀이보존회(속초사자놀이 공연)

12 **제11회 실향민 문화축제**
 일 시 6. 12.(금)~6. 13.(토)
 장 소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

제11회 실향민문화축제 프로그램 일정

시간	6. 12.(금)				6. 13.(토)			
	메인무대	엑스포잔디광장 일원			메인무대	엑스포잔디광장 일원		
10:00								
10:30					함상위령제			
11:00		실향민문화 티셔츠 그리기 체험						
11:30	우리동네 아티스트				우리동네 아티스트	실향민문화 티셔츠 그리기 체험		
12:00								
12:30								
13:00								
13:30	활동양향제	실향민대마을 & 지역문화체험부스				실향민대마을 & 지역문화체험부스		
14:00								
14:30	식전행사			실향민문화예술포럼2 <지역문화예술공연>				
15:00	개막식	실향민문화 역사관 & 어린이놀이터	실향민문화 역사관 & 음식부스			실향민문화 역사관 & 어린이놀이터	실향민문화 역사관 & 음식부스	
15:30								
16:00								
16:30	전국 실향민 노래자랑							
17:00					실향민 음식 토크쇼			
17:30								
18:00								
18:30								
19:00	실향민문화예술포럼1 <북한예술단공연>							
19:30								
20:00					폐막식 & 폐막공연			
20:30								

주최 **속초** 주관 **속초시립박물관** 후원 **홍익부** **속초시립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14 **속초시립박물관 일요일작은 콘서트**
 일 시 6. 14.(일) 11:00
 장 소 속초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
 내 용 아라리 흥마당(퓨전 생활 국악장구 공연)

19 **속초시립박물관 단오민속체험행사**
 일 시 6. 19.(금) 10:00~17:00
 장 소 속초시립박물관
 내 용 단오선 만들기, 봉송아 물들이기, 수리취떡 만들기, 미숫가루 만들기, 속초시립풍물단 공연 등

20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물고기〉**
 일 시 6. 20.(토) 13시 / 15시 ※ 2회 공연(60분)
 장 소 속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정가 50,000원 / 온라인 예매 18,000원



21 **속초시립박물관 일요일작은 콘서트**
 일 시 6. 21.(일) 11:00
 장 소 속초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
 내 용 속초사자놀이보존회(속초사자놀이 공연)



※ 상기 일정은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행사별 자세한 내용과 변동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문화유산, 떡살

글 / 사진 속초시립박물관

떡살은 우리 전통 떡 가운데 절편의 표면에 무늬를 찍어 내는 도구이다. 떡에 무늬를 새긴다고 해서 '살 박는다'고 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떡손·떡판·도장 등으로도 불렸다.

떡살은 단순히 떡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도구만은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은 떡에 여러 문양을 새기며 장수와 복, 풍요와 다산 같은 소망을 함께 담아냈다. 예를 들어 직선무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에서 장수를 상징하였고, 삼각무늬는 숫자 '삼(三)'이 완전을 뜻한다고 여겨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壽)', '복(福)', '희(禧)'와 같은 글자를 새기기도 하였다. 결혼식에는 원앙이나 나비 문양으로 화목과 다산을 기원하였고, 회갑잔치에는 거북문양이나 '수복(壽福)' 글자를 새겨 오래 살기를 바랐다.

떡살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는데, 박달나무·감나무·대추나무처럼 단단하고 질긴 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기나 백자로 만든 떡살도 있었는데, 특히 궁중에서는 품격 있는 백자 떡살을 사용하였다. 떡살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일주일 정도가 걸릴 만큼 많은 정성과 기술이 필요하였다.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문양에도 차이가 있었다. 산간 지방에서는 노루나 토끼 같은 산짐승 문양이 많았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새우나 가재처럼 바다 생물을 표현한 문양이 나타났다. 특히 음식 재료가 풍부했던 남부 지방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떡살 문양이 발달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떡살이 여인들의 중요한 살림 도구이기도 하였다. 혼수품으로 떡살을 챙겨 가기도 했으며, 잔칫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떡을 만들면서 각자의 떡살 솜씨를 뽐냈다. 그래서 자신의 떡살에 이름이나 주소를 새겨 두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떡살은 단순한 조리 도구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미적 감각과 정성, 그리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생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시립박물관 바로가기

떡살 사진

우리동네 소식

영랑동



영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날 맞아 아동 지원사업 추진

영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심재경, 주영래)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쿠폰 170매(약 93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또한 다솜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랑마음나눔기금'을 활용하여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외식 지원과 함께 학용품 및 학습지 등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동명동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명동주민자치위원회, 어버이날 기념 동명동 관내 6개 경로당 성금 전달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근상, 김영혜)와 동명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태진)가 지난 5월 6일에서 5월 7일 이틀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동명동 관내 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성금 150만 원과 두유 6박스를 전달하면서 지역 사회 어르신에게 온정을 전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금호동



2026년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초청 「효(孝)드림 밥상」행사 개최

금호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규영)가 지난 5월 12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하여 금호동주민센터에서 「효(孝)드림 밥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호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속초중앙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어르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금호동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장바구니' 전달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지웅, 이경순)는 지난 5월 11일 관내 저소득층 10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맞춤형으로 구성된 5만 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전달하였다. 또한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역할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교동



교동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을 전하는「푸드뱅크」사업 추진

교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섭) 지난 5월 13일 사랑을 전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홀로 어르신 40가구에 방문하여 국과 반찬을 직접 배달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따뜻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양동

조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리천사」 사업 추진

조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성봉, 윤임용)가 지난 5월 11일 요리천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양동 희망나눔기금과 지역주민의 후원을 바탕으로 반찬(가자미조림 70개, 두부 50개, 무생채김치 106개, 양파장아찌 106개)을 만들었다. 위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직접 조리한 밀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민관협력 복지 실천의 의미를 더하며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청호동

대우반점, 관내 어르신 중식(짜장면) 제공

대우반점(대표 김영록)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12일 청호동 관내 어르신 250여 명을 초청해 정성과 온정을 가득 담은 따뜻한 중식을 대접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한 어르신은 따뜻한 식사와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대포동

대포동주민센터, 동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

대포동주민센터(동장 강연화)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현장중심의 능동적 보건복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월 28일 중도문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정보를 파악하여 복지육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동장과의 대화를 통해 경로당 및 지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다.



이달의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문의: 속초시 일자리지원센터 033-639-2526

사업장명	자격 조건	모집 직종	근무 시간	급여
조양어린이집 (033-637-6330)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돌봄교사	전담 09:00~18:00 보조 10:00~14:30	시급
속초시효재가노인복지센터 (033-637-3393)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09:00~18:00	월급제
트랙터월드설악 주식회사 (033-636-3543)	1종보통면허 소지자	운전직	09:00~18:00	월 2,300,000원
트랙터월드설악 주식회사 (033-636-3543)	1종보통면허 소지자	영업관리직	09:00~18:00(격주 토요일 근무실시) 토요일 근무시간 09:00~16:00	월 3,500,000원

* 위 내용은 5.15.(금) 기준 채용 정보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속초시 홈페이지 구인구직정보에서 구인표 작성 후 일자리지원센터에 팩스 제출(☎ 033-639-2465)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일자리지원센터 바로가기



속초 썩! 다른 그림 찾기



사진: 2026 설악무산축전

2026년 5월호 다른그림찾기 정답공개



축하드립니다!

김O형 박O영 김O용 이O숙
김O옥 이O희 노O희

*동일인 중복 응모 시 1회 응모만 인정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여방법

두 그림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그림 (5곳) 찾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찾은 후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연 참여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바로가기

참여기한

매달 15일까지

오류 발생 시 해결 방법

정답 사진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나요?
서버 에러가 발생한다면, 사진의 용량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진을 조금 멀리서 촬영한 뒤,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내주세요.

속초둥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지빈이가 태어났어요.

김진솔 엄마, 이수영 아빠가 지빈이에게 하고 싶은 말

지빈아,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게, 사랑해♥



이지빈
아기



독자 한마디

지난 호 소식을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이재운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속초 친척 집에 놀러 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바다 냄새 가득한 골목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푸른 바다는 어린 저에게 큰 추억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아이들과 함께 속초를 자주 찾으며, 제가 느꼈던 따뜻한 기억들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늘 같은 자리에서 반겨주는 속초 바다를 보면, 어린 시절의 저와 지금의 가족이 함께 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언제 가도 한결같이 기다려주는 바다가 있어 속초는 늘 특별한 곳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가득한 속초. 혼자만 알기 아까운 속초의 모습을 아래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알려주세요. 매달 15일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기고 속초에 살면서 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한컷, 속초 속초에 살면서 찍은 다양한 속초의 사진을 한 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속초둥이 새롭게 속초시민이 된 속초둥이(출생아) 사진과 축하 메시지(20자 이내)를 보내주세요.(이메일 ireneny@korea.kr)



※ 코너명,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누락 시 원고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 (mysin@korea.kr)로도 참여가능 합니다.

속초 뉴스



제54회 어버이날 맞이 각종 행사 개최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 속초시는 지난 5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신의 세월을 존경합니다'라는 주제로 어르신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 꽃 달아드리기, 경로헌장 낭독 및 유공자 포상 등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앞서 5월 7일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는 '제19회 효, 사랑나누기 한마당'이 열렸다. 점심식사 제공과 함께 건강상담, 노인대학 상담 및 우울 검사, 염주 팔찌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 또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무료급식소와 청초주공아파트 입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행사로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효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활 교통·보행 환경 개선 추진

차량 상승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환경 개선이 추진되었다. 청호동 수협 맞은편 우회전 차로 신설(L=45m, B=8→11m), 속초시민약국 앞 가속차로 신설(L=30m, B=3m), 장천마을 입구 보도 확장과 청초지구대 주변 보도 확장(차도 확장 병행), 겨울철 파손된 차도 정비(4개소)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향후 응골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속초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개선 등의 사업들도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04회 속초시 어린이날 큰잔치 성료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속초시종합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제104회 속초시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렸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아동·가족 놀이 화합 축제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관내 아동과 가족 등 6천여 명이 모인 행사는 모범 어린이 표창과 아동권리헌장 낭독 등 경건한 기념식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2부에서는 화려한 마술쇼와 지역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무대 공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11만 톤급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 12일 속초항 출항

지난 5월 12일,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출항했다. 일본 오타루와 하코다테를 기항한 뒤 5월 17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4,261톤, 전장 285m, 폭 32m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으로 승객정원 2,370명, 승무원 최대 812명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번 출항에는 크루즈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선발된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속초시민 크루즈 체험단' 300명이 함께 승선했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 보치아팀 정호원 '2026 보치아 몬트리올 월드컵' 동메달

보치아 BC3(보조자, 보조장치가 필요한 선수) 세계랭킹 1위 정호원 선수가 속초시장 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보치아팀 창단 후 참가한 첫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보치아 몬트리올 월드컵대회'에 김승겸 코치와 참가해 BC3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속초시 보치아팀은 BC3 정호원, BC2 이정호, BC4 정종식 선수와 이문영 감독, 김승겸 코치로 구성돼 있다.

속초사자놀이보존회, 제19회 강원무형유산대상 '대상' 수상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연합회는 지난 15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속초사자놀이보존회를 제19회 강원무형유산대상 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속초사자놀이보존회는 소멸 위기에 놓였던 이주민 공동체 무형유산을 복원하고, 제도적 가치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13년 발족 이후 2019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31호 지정,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등재 종목 포함,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단체 지정까지 속초사자놀이의 보존과 위상 강화를 위한 성과를 이어왔다. 이번 수상은 보존회의 꾸준한 전승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속초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될 것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



세대와 문화를 잇는 '2026 설악무산문화축전' 개최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설악산 신흥사 조실을 지낸 조오현 스님의 화합과 상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2026 설악무산문화축전'이 열렸다. 축제는 개막식 및 축하공연, 제4회 설악청소년문화축전, 제3회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 무료 문화체험버스 운영 등 세대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8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아~ 알려드립니다.

알림마당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의 달

□ 개요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연세액 납부자 제외)
- 납기: 2026. 6. 16.~6. 30.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창구 납부
 - 은행 CD/ATM 및 공과금 수납기: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
 - ※ 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부담
 - 계좌이체: 가상계좌번호(농협), 지방세입계좌(위택스)
 - ※ 타 금융기관의 이용 입금 시 수수료 부담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사이트
 -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납부: 신용(현금)카드 납부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송달 신청 납부

구분	위택스	금융결제원지로사이트
QR코드		

□ 문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 033-639-2160, 2161)

속초시 신중년 플러스 사업

□ 사업개요

- 납세의무자: 2026. 4.~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1인 연 50만원 이내 취·창업 교육비 실비 지원(생애 1회)
 - ※ 2026. 1. 1.이후 시행된 취·창업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속초시 거주 만 46세~64세 이하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
 -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
- 대상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 신청방법: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 ※ 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서류 구비 후 방문

□ 문의: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033-639-1542)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사업개요

- 대상: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884명
- 기간: 2026. 5. 16.(토)~7. 31.(금)
- 방법: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1:1 설문조사
 - ※ 조사 완료 후 소정의 답례품 지급
- 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유병 및 관리수준 등 면접조사

□ 문의: 속초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3-639-2088)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사업개요

- 일시: 2026. 6. 17.(수),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속초시청 신관 5층 대회의실
-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참여대상: 시민 누구나
- 내용: 고충 및 불편사항 상담, 기타 법률 상담 등
- 분야: 모든 행정분야,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서민금융지원, 소비자피해구제, 지적(地籍)분쟁

□ 세부사항

- 상담분야
 - 행정분야: 행정, 문화관광, 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방송통신, 산업, 농림, 환경, 해양,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행정분야
 - 협업기관 상담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서민금융, 생활법률, 지적·측량 등
- 신청방법
 - ① 현장접수 (당일 15:30까지)
 - ② 상담예약 [26. 6. 9.(화)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 속초시청 별관 4층 감사법무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감사법무담당관
 - 이메일: zzooo@korea.kr
 - ※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 속초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033-639-1510, 3893)

12세 남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국가예방접종 시행

□ 사업개요

- 접종대상: 12세 남성 청소년 무료
 - 기존: 12~17세('08~'14년생) 여성 청소년 및 18~26세('99~'07년생) 저소득층 여성
 - 신규: 12세('14. 1. 1.~12. 31.출생) 남성 청소년
- 시행일자: 2026. 5. 6.(수)~
- 지원백신: HPV 4가
- 접종횟수: 0,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접종장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 10개소 / 속초시 보건소 접종 불가
 - ※ 위탁의료기관은 속초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 가능

□ 문의: 속초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 033-639-2921, 1521)

야차룰도 학교폭력입니다

‘야차룰’이란?

유튜브 채널 ‘야차클럽’에서 만든 규칙으로 장소 제약 없이 맨손으로 격투기 경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 놀이도, 스포츠도 아닌 명백한 폭력행위!
- ▶ 서로 동의해도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가능
- ▶ 호응을 유도, 심판을 보거나 망을 봐도 방조범에 해당
- ▶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가능

신고대상

뺏다방에서 식품이나 의료가기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 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 뺏다방이라고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뺏다방 피해사례

①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혈당 조절 및 항암효과가 있다고 광고

- 개당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

②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 개당 18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

③ 무료 의료가기 체험방을 치러놓고, 의료가기가 탈모·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에 판매

뺏다방 신고 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가까운 대한노인회 속초지회 (633-2926)

어르신~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면 절대 속지 마시고

1399 로 신고해주세요!

전단지,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처벌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같이 신고해주세요.

속초시청 관련부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639-2252, 1601

보건소 의약관리팀 639-2553, 1522

공중위생팀 639-2914, 2499



홍보관

뺏다방

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경원특별자치도 속초시 GWO 강원관광재단

힐링의 첫발을 맨발로, 다 함께 속초로 출발!

맨발 걷기 챌린지

2026. 5. 1.(금) ~ 11. 30.(월)

맨발걷기 4개 코스 중 1곳만 인증해도 캐시 지급!

자세한 챌린지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맨발걷기 코스: 속초해수욕장, 영랑호, 청초호, 솔바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하기 전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다가 서행하세요!

일시정지

2. 우회전 중

보행신호등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일시정지

강원경찰청 WAWAEE POLICE POLICE

2026 실향민문화육성사업

제11회 실향민문화축제

속초, 마음을 잇는 고향

2026. 6. 12. (금) ~ 6. 13. (토)

속초 엑스포 잔디공원 일원



주최 **속초** SOCHU CITY

주관 **속초문화관광재단** Sokcho Culture & Tourism Foundation

후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